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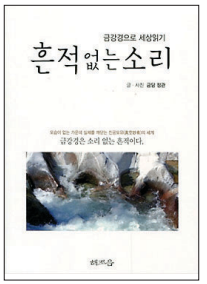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26~2015.1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담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6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2	법명해설사전	조계종교원 (주)조계종출판사		7	가마-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역음	모과나무
3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홍진	불광출판사	8	정신과 의의 재현으로 보는 새마의 원해사	전현수	불광출판사
4	한권으로 읽는 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9	이야기를 담은 사찰법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5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영근·신명환·호림		10	신심명(물물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금강경〉 모티브한 일상생활 속 소참법문집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흔적 없는 소리
글/사진 정관 스님
해조를 떠냄
1만 5천원

〈금강경〉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된 대표적인 불교경전이다. 〈금강반야경〉·〈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전의 범어 원전 사본은 티베트·중국·한국·일본에 전하고 있으며, 한역본은 402년에 요진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 외에 7종이 있다. 선종에서도 중국 선종의 제5조인 홍인(弘忍) 이래 특히 중요시되었고, 제6조 혜능(慧能)은 이 경문을 듣고 발심해 출가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삼국시대의 불교유입 초기에 전래했으며, 고려 중기에 지눌 스님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을 위해서 반드시 이 경을 읽게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이 경은 공한 지혜로써 그 근본을 삼고,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았다. 공의 사상을 설명하면서도 경전 중에서 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쓰여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대승과 소승이라는 두 관념의 대립이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경전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경의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 인도의 무착(無著)은 18주위로 과판(科判)했고, 천진(天親)은 37단(三十七斷疑)로, 중국 양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는 32분(三十二分)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바로 이 소명태자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흔적 없는 소리〉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대구 향림사 주지 정관 스님(사진)의 일상생활 속 소참법문집이다.

스님은 머리말에서 “소리는 아무 형체가 없지만 생각을 형상화하고 소통의 형태로써 표현된다. 생사가 본래 없듯이 우리 삶의 본질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묘한 것, 바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비어있는 세계를 바로 보는 것”이라며 “매 순간 마음이 딛고 있는 본래

그 자리, 마음의 비어 있는 공(空)의 세계에 가 닿기를 바란단다”며 책 제목을 ‘흔적 없는 소리’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한다. 덧붙여 스님은 “금강경은 결국 모습이 없는 가운데 실체를 깨닫는 데 있다고 볼 때 소리는 흔적이 없는 것이다. 밖에서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유무(有無)를 떠난 공(空)의 세계를 바로 보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도량임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한다.

에세이 천수경에 이어 이번에 펴낸 이야기 금강경 속에는 금강경 총 32분(分)을 스님 특유의 감성이 녹아 있는 시적 언어로 승화한 시 32편과 함께 32가지 비유적 이야기를 꼬집어내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애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다가를 연발 탐독하며 자신의 삶에 되돌아보기에 안성마춤인 책이다. 특히 이번에 펴낸 금강경으로 세상읽기 〈흔적 없는 소리〉에는 평소 사진 찍기를 즐겨하는 스님의 수준 높은 작품 사진도 함께 수록해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금강경〉을 들여다보면 32분 중 핵심사상을 담은 것은 제3·4·5·7·10·18·23·26·32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제3의 〈대승정총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번잡한 차별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곧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장애 요소로 네가지 상을 꼽는다고 저자는 밝힌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되 내가 저들을 제도하였다는 관념이 없어야 함은 물론,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의 4상이 없는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는 신라시대 고승인 자장율사의 태백산 정암사에 얽힌 일화도 소개한다.

이어 저자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지극한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오직 기도라는 도구만이 이 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참회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작용은 오직 유일하게 인간의 기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도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용기”라고 설명한다.

제4의 〈묘행무주본〉에서는 집착함이 없 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하도



금강경 총 32분에 선시, 일화 등 담아 시적언어, 비유적 이야기 이해 도와 저자의 계절별 작품사진도 수록

록 가르쳤다. 또한 제5의 〈여리실견본〉에서 저자는 이렇게 시적 언어로 참 뜻을 승화시켰다. “나는 보고자 하나 나는 볼 수가 없네/눈으로 보지도 말고 생각으로 보지 말라하네/거기 있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고/모두 허망한 것이라고/보이지 않는 것을/보는 자가 되라 하네/그러하면 마침내 볼 수 있을 것이라고/지금까지 눈을 부릅뜨고 보아왔던 것은/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허상/진실을 보려는가/그럼 바로 보시게/다음으로 미루지 말고/바로 지금 보시게/나/그러하면 보일 것이네”

이 분에서는 32상을 갖춘 부처님의 육신이 영원한 진리의 몸인 법신(法身)이 아님을 밝히고, 참된 불상은 무상(無相)이라고 설한다. 특히, “무릇 있는 바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고 한 유명한 사구계(四句偈)가 수록되어 있어 더욱 중요시된다.

제7의 〈무두무실본〉을 해설하면, 최고의 지혜를 이룬 자리에서는 언어 표현이 구태여 거주장 스러운 것이며, 또한 그 자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거나 획득했다는 개념조차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무두무실본〉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도 따로 얻은 바가 없고 어떠한 진리도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래 그 자리에 다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저자 정관 스님은 “이는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가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중생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이라고 전한다.

제10의 〈장엄정토본〉에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외적인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應無所住而生其心)’을 가르친다고 저자는 밝힌다. 이는 혜능 및 여러 고승들을 깨닫게 한 유명한 구절이다. 저자는 또한 이 분에서 조국 이스라엘은 잃었지만 민족정신만 잃지 않은 일화도 곁들인다.

제18의 〈일체동관본〉에서는 부처가 모든 중생의 차별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음과 과거·현재·미래의 마음은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제23의 〈정심행선본〉은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자는 본디 마음이 투명하고 깨끗한 법임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법평등’이 진리의 세계는 차별 없이 평등하므로 높고 낮고도 자랑할 것도 아니며, 없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높이 있다고 모양만 일도 아니며, 낮다고 비굴할 것은 더욱 없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제26의 〈법신비상본〉에서는 여래를 형체에 얽매어 보지 말 것과 ‘만약 형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싯된 도를 행함이니, 결코 여래를 보지 못한다.’는 사구계를 설하고 있다. 마지막 제32의 〈윤회비진본〉에서는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이 꿈·환영·물거품·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우뢰와 같음을 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쓴 이는 800여 인에 이른다며 하며, 현재 인도본 5종, 중국 122종, 한국 14종, 일본 61종의 저서명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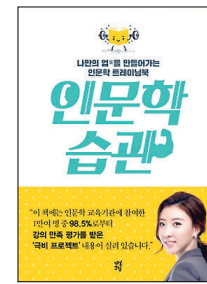
저자 정관 스님은?

불교사 성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영동 반야사 주지, 대구 운흥사 주지, 대구 동화사 기획국장, 청도 용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향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여유〉(산사에서 피우는 풍경소리) 〈마음을 주는 손과 시집으로 눈이 오면 날〉(꽃비) 〈날마다 좋은날〉 등이 있다.

“인문학적 소양,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죠?”

인문학 습관

윤성정 지음 | 다산 초당 펴냄 | 1만 5천원



인류(이하 인류)의 윤성정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만 시간 동안 직접 실험을 행한 청년교육자이다. 인생을 개조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교 재퇴 후 200개가 넘는 인문학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돌렸으며, 그것은 그대로 국내 최고의 실용 인문학 교육 기관, ‘인류’의 커리큘럼이 되었다. 작은 스타디움에서 시작된 이 교육 프로젝트는 1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강의 만족 평가가 98.5퍼센트에 달하는 ‘신 개념 인문학 학교’로 발전하였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문학 공부 = 책 읽기’라는 공식에 얽매어 있다. 하지만 저자는 공자와 소크라테스 책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언정 나의 상상, 면접관, 남자친구의 마음조차 사로잡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력히 말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배운 것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인류에서는 실제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지적 같은 변화를 일으킨 수강생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저자는 고전을 읽고 강연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며, 인문학은 결국 ‘습관의 문제’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2011년 구글의 부사장은 앞으로 6천 명의 직원을 채용하되, 그중 4~5천 명은 인문학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저자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상반기부터 한국의 채용 시장에 변화가 올 것임을 예측하였고, 실제로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읽었던 인문학 책 목록 등을 요구하며 채용 시장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때 저자는 ‘왜 기업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인재를 뽑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는 ‘30일 만에 끝내는 인문학’ ‘4주 안에 끝내는 인문고전 읽기 소모임’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친구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를 역시나 버려치기로 끝내려는 모습을 보며 저자는 ‘한국형 인문학’이 다시 정립되어야 함을 통감했다. 한국 학생들에게 ‘인문학 기초 근력’을 키워줄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 책은 ‘깨뜨리기 습관’, ‘역지사지 습관’부터 ‘모방 습관’까지, 자신의 인생을 개조시킬 수 있는 9단계 인문학 솔루션을 제공하며, 각 장 마지막 부분마다 이미 인류에서 검증된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 그리고 실제 트레이닝 후기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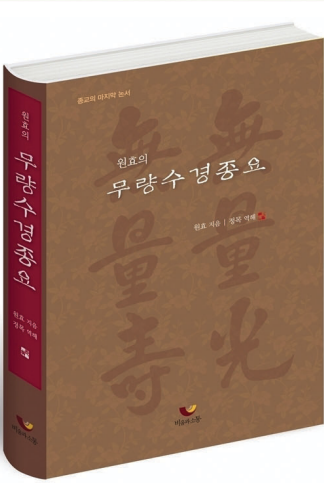
예를 들면 “우유부단해서 자기 소개서 쓰는 것도 힘들어요.” 답은 1일 1글씨 트레이닝으로 선택과 집중 능력을 키운다이다. 또한 “아빠가 너무 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라는 고민에 저자는 이

“고전 읽기 전 인문학 근력부터”

쉽게 따라 하는 9단계 인문 솔루션 내 업 만드는 인문학 트레이닝북

렇게 답한다. “미워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인생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인문학 트레이닝북’이다. 예를 들어 인류의 수강생 J양의 경우, 취업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보내는 안부 문자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저자는 이를 때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장사 프로젝트’에 도전해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페이스북에 몽땅 태그하고, 자신의 모습을 동네에 온전히 드러내며 꼭 장사에 도전,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완판’을 해냈다. 그 외에도 생각이 많아 행동으로 잘 안 이어지는 친구에게는 “그만 요법”을 전수하여, 망상들이 자신을 덮어채울 때 “그만!” 하고 외치는 습관을 통해 채우는 등, 이 책에는 많은 ‘변화 사례’가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쉽게 윤회를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도를 보인 원효성사의 논서!

- 종교의 마지막 논서 -

원효의 무량수경중요

정목스님 번역·해설 | 신국판 | 양장 | 흑백 | 384쪽 | 20,000원

오몽골 백승(白僧)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양장 | 280쪽 | 14,000원

원인론과 범어학을 번역·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역역 | 신국판 양장 | 25 | 348쪽 | 20,000원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힘을 체험케 하는 묘한 논서 현세에 안심을 얻고 정도를 감득해 묘관찰지를 증득하는 법

『무량수경중요』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을 원효성사의 깊고 넓은 지혜로 해설한 보배로운 저술이다. 염불수행법, 보리심, 정정취, 부처님의 지혜 등, 신행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은 염불로 지혜를 성취하여 오락약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범부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성사의 가르침을 우러러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자비광명의 은혜를 입어 안심과 희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중요』는 ‘종교의 마지막 논서’이다.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과 실상, 범부와 성인의 세계관, 철학과 종교의 관계, 성자의 지혜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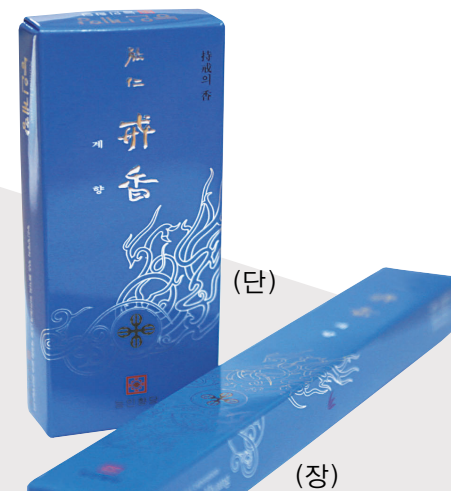
정도원 ☎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tapa) 비물과소통 ☎ 02-2632-8739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료,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Himalaria를 넣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